

7/23/23

설교 제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1 장 1-14 절

- (엡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 (엡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 (엡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엡 1: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 (엡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 (엡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 (엡 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엡 1: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절관주** 엡 1:6
- (엡 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 (엡 1: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관주** 고후 1:22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 AD 62 년경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서신서 중 왕관, 바울 신학의 클라이맥스라고 불립니다.

이 책에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론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로, 특별히 3 차 전도 여행 중에 3 년간 머물며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고 우상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규모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 배나 되는 세계 7 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는 이곳과 연관된 종교 문화 행사등으로 많은 부와 명성을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권 하에 놓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행 19: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행 19: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행 19: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행 19: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행 19: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 본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논리 정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교회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확하고 확고한 교회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일반적인 양식대로 먼저 에베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예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엡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엡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바울의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직접 돌파한 것입니다.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복받쳐오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환희에 젖어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주신, 세상 어디에서도 마주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에 대해 폭포수 같이 쏟아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기업에 보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 은총으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 은총을 말합니다.

이 복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남보다 나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은혜로 불러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라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속량의 복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 1:8) 이는 그(하나님)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엡 1: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엡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1) 모든 일을 그(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엡 1: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죄 사역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힘입어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첫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과 천사들을 기리키고 ‘땅에 있는 것’이란 현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주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말합니다.

주님의 속죄 사역은 인간 뿐만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기업을 누릴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올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이 바로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치셔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엡 1:13)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엡 1: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라는 이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너희'라는 삼인칭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본래 택한 백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용어를 바꿈으로써 구원이 비단 택한 백성이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존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신령하고 큰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